

# KIA 임창용, 한·미·일 통산 최초 1000경기 출장 초읽기

오늘 대구 삼성전 선발 출격...대기록 달성 예정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투수 임창용(42)이 한·미·일 프로야구 리그 통산 1000경기 출장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창용은 17일 현재 KBO 리그 75경기, 일본 프로야구(NPB) 238경기, 미국 프로야구(MLB) 6경기 등 한국과 일본, 미국 통산 999경기에 나섰다. 18일 대구 삼성전에 선발투수로 등판하는 임창용은 이 경기에서 한·미·일 1000경기 출장 기록을 쓰게 된다. 이상훈(전 LG), 구대성,

박찬호(이상 전 한화) 등이 한·미·일 프로야구를 모두 경험했지만, 1000경기 출장의 금지탑을 쌓은 건 임창용이 처음이다. 광주 진흥중-진흥고를 졸업하고 1995년 해태에 입단한 임창용은 1998년 12월 삼성으로 트레이드 됐으며, 일본과 미국 등을 거쳐 지난 2016년 KIA로 복귀했다. 올 시즌 1군 무대에 오른 선수 가운데 최고령인 임창용은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다. 특히 선발과 중견, 마무리 보직을 모두 경험하며

각종 기록을 새로 썼다. KBO리그에서만 18시즌을 뒀던 임창용은 1698이닝을 던져, 128승 85패 258세이브 19홀드 144탈삼진 평균자책점 3.44를 기록 중이다. 22세이던 1998년 34세이브를 기록하며 최연소 구원왕에 오르는 등 3차례(98년 04년, 15년)나 세이브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최연소 100세이브(23세 10개월 10일), KBO 최초 3년 연속(1998~2000) 30세이브 기록도 달성했다. 1999년에는 평균자책점 2.14를 기록하며 이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KBO리그 최고령 세이브 기록(42세 3일)도 가지고 있다. 2008년부터 일본 프로야구(NPB)에 진출한 임창용은 야쿠르트 스왈로스에서 5시즌 동안 238경기 233이닝 11승 13패 128세이브 173탈삼진 평균자책점 2.09를 기록했다. 2009시즌엔 개막 후 33경기(33.2이닝) 동안 무자책 행진을 이어가며 '미스터 제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13년에 미국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해 시카고 컵스 소속으로 6경기 5이닝 5탈삼진 평균자책점 5.40의 기록을 남겼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14번째 한국 선수이자, 최고령의 기록을 세웠다. 임창용은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동메달, 방콕(1998년) 부산(2002년) 인천(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2009년 WBC 준우승 등 한국 프로야구의 패거리에 항상 임창용이 있었다.

임창용은 "1000경기에 출장할 수 있었던 건 그 동안 믿고 기용해주신 감독님 및 코칭스태프와 동료, 팬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최대한 즐기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 손흥민 원한다”

토틀넘, 핵심 자원 분류해 이적 가능성 높지 않아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 구단인 바이에른 뮌헨이 손흥민(도르트넘)을 타깃으로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탈리아 갈치오 메르카토는 최근 “뮌헨이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1992년생인 손흥민은 2023년까지 토틀넘과 계약이 된 상태”라는 간단한 설명을 곁들였다. 영국 등 다른 나라 미디어도 이탈리아발 보도를 받 빠르게 전하며 때 아닌 이적설에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손흥민에게 독일은 익숙한 무대다. 프로의 꿈을 키우고,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곳이 바로 독일이다. 손흥민은 만 16세에 독일 함부르크로 건너가 기량을 쌓았다. 함부르크에서 이름을 알린 손흥민은 레버쿠젠을 거쳐 토틀넘에 입성했다. 뮌헨 이적설은 손흥민의 병역 혜택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병역 부담에서 자유로워졌다. 또 다른 매체인 팬사이드는 “손흥민은 최근 군면제를 받아 커

리어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는 빠르고 양발을 다재다능하게 쓸 수 있는 선수다. 강력한 슈터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손흥민의 뮌헨행이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토틀넘은 손흥민을 핵심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를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5년 가까이 남은만큼 현재 추경 13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이적료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아무리 뮌헨이라도 선뜻 지불하기 어려운 액수다. 팬사이드는 “독일 매체들이 이탈리아발 기사를 인용하지 않고 있기에 이적설의 타당성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뮌헨 관점에서는 의미있는 행보가 될 수도 있다”면서 “손흥민은 독일에서의 생활이 익숙하다. 게다가 (레버쿠젠 출신의) 뮌헨 수석 스카우트는 손흥민의 재능을 잘 알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진위 여부를 떠나 이번 이적설은 유럽 내 손흥민의 위치를 입증해준다. 병역 문제까지 벗어난 손흥민이 올 시즌 뛰어난 활약을 펼친다면 그를 향한 러브콜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 배상문, 내년 PGA 시드권 확보

웹닷컴투어 파이널시리즈 3차전 우승



골프(PGA) 웹닷컴투어 파이널시리즈 3차전 엘버트슨스 보이시 오픈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19언더파 265타를 적어낸 배상문은 공동 2위 그룹을 1타 차로 따돌리고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마지막 18번홀 버디 퍼트가 홀컵에 떨어지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웹닷컴투어 상금랭킹 1위로 올라선 배상문은 마지막 4차전 성적에 관계없이 상금 상위 25명에게 부

배상문(32)이 내년 시즌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무대를 누빌 수 있게 됐다. 배상문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의 힐크리스트컨트리클럽(파기)에서 열린 미국프로

차로 따돌리고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마지막 18번홀 버디 퍼트가 홀컵에 떨어지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웹닷컴투어 상금랭킹 1위로 올라선 배상문은 마지막 4차전 성적에 관계없이 상금 상위 25명에게 부

여하는 다음 시즌 PGA투어 카드를 손에 넣었다. 배상문은 군 전역 후 PGA투어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꿈의 무대에서 경쟁을 지속할 기회를 잡았다. 배상문은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경기 내내 큰 흔들림 없는 플레이에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다. 우승 퍼트는 예전 입대 전 우승 퍼트와는 느낌이 많이 달랐다. 전혀 긴장이 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마지막 퍼트에만 집중하고 싶었고, 성공시켰다. 퍼트를 성공시킨 뒤에는 군대 생각, 제대 이후 마음 고생했던 모든 시간들이 떠올랐다”고 전했다. “웹닷컴투어 파이널시리즈에서 자신감을 많이 되찾았다. 목표가 PGA투어 우승인만큼 당장은 휴식을 취하며 다음 시즌 개막전에 초점을 맞춰 샷을 보완할 예정이다. 배상문은 웹닷컴투어 파이널 투어 챔피언십을 건너뛴 뒤 다음달 8일 열리는 PGA투어 2018~2019시즌 개막전인 세이프웨이 오픈 준비에 집중한다.

## 세계적인 축구스타 둘 데리고 4연패

포돌스키·이니에스타 영입 불구 중위권 고전...고베 감독 경질

일본 프로축구 J리그 비셀 고베가 세계적인 축구 스타 투카스 포돌스키(33)와 안드레스 이니에스타(34)를 보유하고도 최근 4연패에 빠지는 등 중위권에 머물고 있

어 감독 경질 카드를 꺼냈다. 고베는 17일 “요시다 타카유키 감독을 비롯해 코칭스태프를 해임한다. 하야시 켄타로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즌 도중에 감독을 교체하는 초강수다. 지난 시즌 코치에서 감독에 오른 요시다 감독은 공격적인 축구로 기본 틀을 잡았지만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됐다. 구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됐음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이 발목을 잡았다.

뉴시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숲이 있는

#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칠새마을, 화연사, 설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